

학습 자료

— 대학생들을 위한 저작권 노트 —



1차시. 너와 나를 위한 법, 저작권법

1.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이유

인류는 오랜 시간 저작권 제도 없이도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제도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저작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블로그에 쓴 글, 여자친구에게 보낸 메일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나 소설, 사진, 그림 중 상당수는 직업 저작자에 의해 창작된 것이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력의 열매를 거두어드릴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창작과 배포에는 비용이 드는데, 이를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창조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제3자의 부당이득이 방조되며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1) 이론적 근거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에 대한 학제적인 근거로는 노동이론, 유인이론 등이 있고 최근에는 법경제학적 분석에 따른 분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동이론은 창작자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것이므로 마치 사과나무를 키운 농부가 사과를 가지듯이 그 결과에 대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부여하는 근거는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지요. 유인이론은 창작자에게 창작활동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창작을 ‘유인’한다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법경제학적으로,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사회에 보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이론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2) 보다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위해

저작권을 보호하면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 모두가 이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 개인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문화 상품의 수출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저작권의 특징

① 재산권으로 보호

저작물은 창작에 많은 노력이 드는데 비해, 복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법으로 저작물을 보호하게 되었고, 베른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에서 ‘재산권’으로 보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이라 불리는 것이죠.

재산권은 법이 보호해 줍니다. 저작권도 ‘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쓰면, 그만 쓰라고 할 수 있고(금지청구), 손해를 본 만큼 배상을 청구하며(손해배상청구), 때로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4주차에서 상세하게 배우도록 합시다.

② 비배제성, 비경합성

저작물은 누군가 불법복제를 하더라도 내가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를 비경합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참고하세요.



2.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보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많은 저작물이 창작되고 이를 원활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도 함께 고려합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지요.



3. 저작권의 부여와 원활한 이용의 도모

1)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법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을 한 사람에게 저작권이라는 재산권을 줍니다. 동시에 이용자를 배려하여 보호를 배제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지요. 절대 저작권자의 보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아닙니다.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 즉 우리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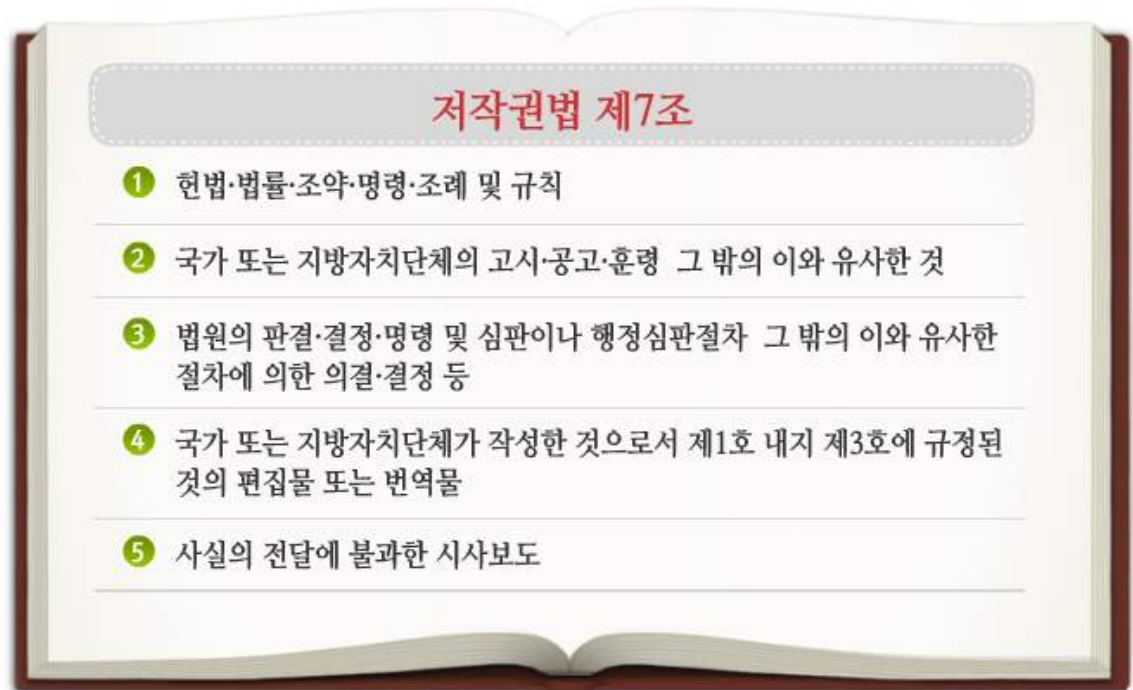
간혹 언론에서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는 얘기를 듣지요. 이는 권리의 부여와 공정한 이용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디지털환경의 도래로 저작권자들의 이익이 크게 위협받을 때, 새로운 권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지요.

지나치게 권리가 강화되었다면 이용자를 위한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소위 공정 이용 일반 조항이라는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2)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

역사적으로 저작권법이 생겨날 때 복제할 수 있는 권리에서 시작되었고, ‘Copyright’이라는 말도 복제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정성껏 음악을 녹음하여 선물하여도, 저작권법은 범법자로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강의시간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노트에 받아 적는 것도 일종의 복제이지만, 교수님이 여러분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지는 않으시지요. 마음에 드는 시 한편을 편지에 적어 친구에게 보내도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복제권을 권리자에게 부여하는 한편, 이용자를 위하여 사적복제를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을 함께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려면 영화에 대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지요. 가수들이 콘서트를 할 때에도 작곡자와 작사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연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기타를 치면서 동아리방에서 노래를 불러도 작곡자가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방송에서 가요나 팝을 틀어주면서도 저작권 걱정을 하지 않지요. 이는 저작권자에게 공연권이라는 권리를 주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영리공연방송에 대한 저작권 제한규정을 마련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사후 70년으로 제한하여, 베토벤의 월광이나 고전 소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이용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내 핸드폰이나 불펜에 대한 소유권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과 비교되지요.



또 법령이나 판결문은 저작권의 보호를 배제합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은 권리를 부여함에 있어 이용자를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저작권의 보호를 배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지요.

3) 저작권의 보호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합법저작물 시장을 침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생산 기회를 상실 또는 유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고용, 부가가치 등의 창출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이 손실의 규모를 콘텐츠 시장규모와 비교하자면 생산액측면에서는 7%,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6.1%, 고용 측면에서는 6.8%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내의 콘텐츠 불법복제행위를 막아 생산 활동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경우, 콘텐츠 산업은 물론 여타 국내 산업 전반에 매우 큰 경제적 효과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특히 취업계수가 높은 음악, 영화 등의 분야는 고용파급효과가 매우 커 국내의 실업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입니다.

4) 저작권 기증

저작권 기증은 공익을 위한 제2의 저작권 활동입니다. 저작권법 제135조에는 저작권 기증에 대한 조문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역시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증된 저작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용허락서를 신청하면, 이용범위를 확인한 후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이용허락증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 기증 신청 링크 : <http://freeuse.copyright.or.kr/donation/guide.html>